

예수 부활 대축일

제 1 독서 : 사도 10, 34a, 37-43

제 2 독서 : 골로 3, 1-4

복 음 : 요한 20, 1-9

순정이

“예수의 머리를 싸맸던 수건은
수익과 함께 흩어져 있지 않고
따뜻한 곳에 잘 개켜져 있었다.”
(요한 20,7).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



|| 이 부활에는 ||

투명한 빛살 속에
언제나 살아나는 사랑으로 오시는 이여
해뜨고 해지는 세상 끝 어디서나
가난하고 목마른 자에
위로가 되고 먹이가 되어 오시는 이여
포도주가 변하여 피가 되듯
밀떡이 변하여 성체가 되듯
성화되고 성숙된 신앙인으로
우리가 먼저 변화되어

죽음 속에서도 생명을 보는 눈으로
당신 축복 새롭게 열리는
죽음 이긴 이 부활에는
우리가 변하여 그리스도화되어
아 - 땅 끝에 이르기까지
천지가 다 사랑으로 불타
당신 나라 이룩할 복음으로
당신 뜻 이루게 될 부활이게 하소서
• 글 : 박승죽 시 중에서

여 명

“잘못했습니다”라는 말 한마디

한상갑(바오로)

정부가 ‘신한국’을 창조하겠다고 나섰다. 그래서 “깨끗한 정부/튼튼한 경제/건강한 사회/통일된 조국”을 국정표로 내세웠다. 지난 30여년 동안의 군사정권이 역사의 뒷골목으로 물러선 지금이기에,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정치적 의지라 할 수 있다. 군사문화에 염증을 느끼던 국민들로서도 바라고 바라던 일일 것이다. 그래서 새정부를 지켜보는 우리의 관심 또한 큰 것이다. 희망사항도 많고.

***실망과 희망**

깨끗한 정부를 지표로 삼는다는 김영삼 정권은 일차적으로 장관급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를 임명하는 과정에서부터 국민들을 실망시켰다. 그것은 임명된 고위공직자들의 도덕성 시비에서 시작되었다. 국민들을 분노케 했던 부정 입학 소동의 와중에 자녀들의 편법 입학이 말썽의 발단이 되기도 했다. 그냥 넘어가기는 했지만, 국적에 따른 시비도 보기에 썩 좋은 모습은 아니었다. 어쨌든 이러한 도덕성 시비는 고위공직자들의 재산 공개로 더욱 확고하게 입증된 셈이다. 인사가 만사라던 대통령의 말이 무색할 정도의 지저분한 모습이 드러나고만 것이다.

국민의 손으로 뽑힌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그들을 뽑아준 국민들도, 그들을 공천한 김영삼 정권과 책임을 나누어야 한다. 그러나 대통령의 손으로 임명한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사람 불 안목이 부족한 대통령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김영삼 씨는 어려서부터 대통령이 되겠다는 꿈을 안고 살아왔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는 3당 야합이라는 비난을 감수하면서도 호랑이굴에 들어갔고, 과정이야 어쨌건 그는 호랑이 등에 올랐다. 긴긴 세월 동안 호랑이를 다룰 구상도 술하게 했을 것이다. 그런데 정작 국민들 앞에 내놓은 작품은 신통치 못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실망하고, 때로는 허탈과 분노를 느끼기도 한다. 그래도 우리가 맥없이 주저앉을 수 없는 것은 모든 고위공직자들이 폭삭 썩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왜 반발하는가**

고위공직자의 재산 공개에 따른 뒷처리 과정에서 민자당은 몇몇 국회의원들에게 자진 사퇴를 권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몇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당을 떠나고 말았다. 어째서 이들은 반발하는가? 의원직을 내놓거나 정계를 떠난다면 어느 정도 비난의 화살을

피할 수는 있을 것인데도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 당의 징계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일까, 아니면 형평성에 승복을 할 수 없어서일까?

경기장에서 심판의 판정에 불복하는 경우를 더러 볼 수 있다. 어떤 이들은 거칠게 항의하다가 퇴장을 당하는가 하면, 제 발로 경기장을 떠나기도 한다. 때에 따라서는 팀 전체가 경기를 포기하기도 한다. 보기에 썩 좋은 모습은 아니다. 그러나 형평성을 잃은 심판의 판정이나 매끄럽지 못한 경기운영 때문에 일어나는 충돌을 보는 관중들의 가슴은 찢찢하기 그지없다.

***죽어야 부활할 수 있어**

많은 국민들은 고위공직자들의 재산 공개를 환영한다. 그러나 그 운영이 매끄럽지 못하면 여론재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그리고 얼치기 재산 공개로 청렴성을 보장받으려는 쏘판(?)이 안되기를 소망한다.

한 세대가 넘게 우리를 짓눌러 온 군사문화의 잔재를 하루아침에 말끔히 정리하기는 어렵다. 서서히 그러면서도 지속적으로 해나갈 때, 대통령이 주창하는 신한국이 튼실하게 건설될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대통령부터 자신을 진솔하게 드러내 보이는 솔선수범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하나의 예를 든다면, 지난 선거에서 있었던 용공음해에 대한 사과가 바로 그것이다. 이것이 어찌된 대통령이 저야 할 십자가일 것이다. 그러나 그 십자가는 대통령이 소망하는 신한국 건설이라는 부활의 첫열매를 열게 할 것이다.



췁정이가 산책



주님이 계시기에

상처를 통한 부활

김영심(실비아) / 덕진 성당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겠고 또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요한 11,25).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며 살아가는 신앙인들이라 하면 아니 믿지 않는 이들이라도 영원히 살기를 바라며 이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선하게 살려고 애쓴다. 자신이 베푸는 사랑과 봉사를 통해서 함께 걸어가시는 주님을 만날 때 그것이 바로 부활의 삶이기에 우리는 작은 일 안에서도 기뻐하고 행복해 한다.

오늘도 자신이 걸어가는 삶에서 작은 만남의 순간에 예수님을 뵈기에 기쁨의 메시지를 이웃과 나누며 사는 소박한 자매가 있다.

김영심(실비아·41세) 자매, 그는 원광대병원 간호사로서 병원 초창기 때부터 삶을 같이 해왔다. 전주에서 태어난 그는 4녀2남 중 5번째로 특별한 신앙을 가지지 않은 가정에서 그래도 유복하게 성장하였다. 그가 신앙에 눈뜨게 된 것은 성심여고에 입학해서부터이다. 신자 동료들이 점심시간 전에 항상 기도하는 모습이 꽤 인상적이었기에 가톨릭 신앙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결국 교리반에 들어갔고 영세를 받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영세 후에도 하나님의 존재가 가슴 뜨겁게 느껴지지 못하여 안타까웠다. 그러던 중 오빠의 불의의 사고로 인해 그의 신앙을 재촉하는 주님의 손길을 깊이 느꼈다. 그러면서 그는 수도 성소에 뜻을 두게 되었는데 그 길이 자신의 길이 아님을 느끼는

동시에 휘콜라레를 알게 되었고 85년에는 숭선자의 자격으로 이 세상에서 소금과 누룩의 역할을 함으로써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는데 앞장서게 되었다.

그는 원래 간호사 되기를 싫어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모든 것이 하느님의 뜻이었고 천직으로 알고 감사드린다. 매일 만나는 수많은 환자들 안에서 고통 받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들을 보살피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보살피지 않는 것이며 부활의 기쁨도 없음을. 또한 그 환자들을 통해 나의 장애를 뛰어넘고 조금이라도 하느님께 가까이 나가게 되니 자부심마저 갖는다. 중환자실에 근무할 때는 대세도 주고 가까운 성당에 연락하여 선종을 도와주기도 했다.

원광대병원은 원불교 재단이기에 가톨릭 신자가 간호사 300명 중 13명. 이 소수의 신자이지만 병원 안에서 복음을 살려고 하는 의지가 대단하기에 주위에서도 그들의 모습을 보고 하느님을 알게 되기도 한다. 그는 1달에 1번 가톨릭 간호사회 모임을 주관하며, 어려움 중에 있는 동료와 이웃을 구체적으로 도와주는 실천에도 열심이다.

상처를 통해서만이 부활이 있음을 알기에 그는 매일의 작은 고통 안에서, 환자들 안에서 부활을 바라본다. 죽지 않고서는 다시 태어날 수 없다는 진리를 고백하면서...

신자들의 소리

버스 안의 개그맨

안인순(요안나) / 평화동 성당

몇 년 전의 일이다. 코감기가 너무 심한지라 시간이 급한 김에 화장지 1통과 비닐봉지를 가방에 넣고 뛰다 싶이 하여 버스를 탔다. 서두른 탓에 몸 지탱하기가 힘이 들어 혹시나 하며 버스 안을 두리번거리니 웬 은총의 선물인가! 서 있는 사람도 많은데 빈자리가 있다니 축복의 자리인가 보다 생각하며 다가선 순간 실망, 그곳에는 토한 음식찌꺼기와 악취뿐. 한 발 물러서면서 돌아선 나에게 웬 벼락 같은 자문자답인가?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이었다면, 성모님이었다면 어떻게...

주님의 형제요 성모님의 아들이 토해낸 것이니 두 분들이라면 마땅히 치우셨겠지 생각하니 죽을 지경이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화장지와 비닐봉지까지 준비 해주셨으니 기어이 해야 할텐데, “주님, 나의 오른손은 당신 것으로, 나의 왼손은 성모님 것으로 빌려드리오니 마음껏 치우소서.” 화장지로 오물을 닦으며 성부와 한

번 닦고 성자와 두 번 닦고 성신과 세 번 닦고... 버스 안의 시선이 나에게 총집중, 난 졸지에 버스 안의 개그맨이 된 것이다.

오, 신앙의 신비여! 분명히 세번째까지는 나의 의지로 했지만 그 다음부터는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순식간에 말끔히 닦아주었다. 충만한 기쁨으로 자리에 앉아 성호경을 힘있게 그었다. 그 많은 시선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마니피캇이 내 것이 된듯, 내 영혼에 뿌듯하게 피어오르는 기쁨과 평화로 온몸이 똥똥 떠 걷는 그 기분. 태양마저도 오로지 나만을 위해 있는 것 같았다. 성당 문을 여는 순간 십자가의 예수님께 말했다. “주님, 하나도 안 아프셨지요. 지금도 안 아프시지요. 온 인류 구원의 사랑 때문에...”

나의 마음에는 어느덧 부활이 동트듯 밝아왔다.

1993년도 부활절 메시지

주님, 저에게 그

친애하는 교형 자매 여러분,
부활의 빛이 우리 모두와 사회 구석구석에까지 뚫고 들어와 온 누리를 밝게 비추어주시기를 빌며, 요한복음 4장(1절-42절)을 중심으로 부활의 신비를 묵상하기로 하겠습니다.

1. 우리는 거기서 몹시 지친 두 사람을 만납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유대지방에서 거두신 성공으로 인한 바리사이들의 질시 때문에 그곳을 떠나 먼 길을 걸어오시느라 지쳐 우물가에 앉아 계십니다. 이미 남자를 다섯씩이나 섭렵하고 지금도 정식 남편이 아닌 사람과 동거하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은 방향을 잃어버린 자신의 삶으로 해서 허무감과 수치심이 영혼 밑바닥까지 파고들어 이제는 사는 일 자체에 지쳐버렸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나타나지 않는 한낮의 가장 뜨거운 시간을 틈타 영혼의 깊은 갈망을 암시하는 목마름을 잠시나마 가시게 해줄 물을 길으러 온 것입니다.

“나에게 마실 물을 좀 주시오.”

여인의 깊은 목마름을 간파하시고 그것을 해소시켜 주기 위해서 먼 길을 걸어오신 예수님께서서는 먼저 그 여인에게 오히려 물을 청하십니다. 당신 스스로 아쉬운 사람이 되어 도움을 청하시는 예수님을 대하는 여인은 그분과의 만남을 편안한 마음으로 시작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시작된 만남은 그것이 진행될수록 예수님의 인품에 깊이가 닿으면서, 마치 어미닭의 체온을 받아 알껍질을 깨고 넓은 세상으로 나오는 병아리처럼, 그 여인으로 하여금 그 정신을 옥죄고 있던 온갖 껍질을 한꺼풀씩 깨고 마침내 새로운 생명 속으로 뛰쳐나올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 여인은 우선 지역적 혹은 민족적 경계(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저에게 마실 것을 청하십니까?)를 깰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신의 양심을 가장 무겁게 내리누르던 문제를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편안한 심정을 가지고 스스로 발설할 수 있을 만큼 마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이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정립하는데 장애가 되던 기존의



종교 관념(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말하기를 예배를 드려야 할 곳은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을 극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에 관한 결정적 진리가 그리스도라는 분이 오실 때 밝혀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던 여인은 마침내 “당신과 이야기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 순간 여인은 마지막 껍질이 깨어지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 모시게 되었으며 신비스런 방법으로 그분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물이 자기 영혼을 함초름이 채워 울라움을 느꼈습니다. 이제 그 여인에게는 두레박도 물동이도 필요없게 되었습니다. 골수에 사무쳤던 목마름이 한꺼번에 가셨기 때문입니다. 그 여인은 영원한 생명 속으로 태어났습니다. 마침내 부활한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그 여인은 복음의 사도가 되어 동네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같이 가서 봅시다.”

2. 요즈음 우리는 고위공직자와 직업 정치인들의 재산 공개 과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인사들이 그동안 직권을 남용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치부해온 사실이 드러나고, 그 결과 어제까지 국민의 지도자로 군림하던 사람들이 오늘에는 한낱 부동산 투기꾼으로서 국민적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치질 전문 치료 서울의원

레이저로 치질 무통 수술,
수술 후 무통으로 활동 가능
원장 이 상 재(베네딕도)
전주시 덕진동 덕진광장 앞
☎ 75-0550

웨딩드레스 전문점 신부의 집

진주점 관동로 88-6951
군산점 평화동 42-2552
최영자(헬레나)

에맥 미술학원

• 입시 미술 • 아동 미술
• 취미(판화, 수채화, 동양화
교실 운영)
원장 김 준 태(시몬)
주택은행 옆 천보정 회관 3층
☎ 231-5285

지봉·핀금공사 면허업체 이용상사

◎ 갈라 아스팔트 섬굴(특수표준)
◎ 성당 동판 지붕공사 전문
이용길(베드로) 장해경(레지나)
☎ (0653) 54-9948
FAX 856-8269

물을 주십시오



천주교 전주교구장 이병호 주교

이런 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감회를 갖게 됩니다. 세상 많이 변했다는 말이 이런 감회를 잘 나타내준다고 할 것입니다. 세상의 변화는 단순히 이런 엄청난 파문을 물고 온 재산 공개가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재산의 가치를 될 수 있는 대로 축소해서 발표하거나, 발표 직전에 큰 손해를 보고서라도 서둘러 처분하는 어떤 사람들의 모습에서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재산이 이처럼 부담이 되고, 벗어나려고 싶은 죄수복처럼 느껴진 적은 없었을 것입니다. 또 오랫동안 고위공직에 있었으면서도 어떤 이들에게는 단순히 재산이 별로 없다는 사실이 이처럼 개운하고 돋보였던 때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그 자체로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가장들이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부정과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변 사람으로부터 무능한 사람으로 평가를 받고, 때로는 집안 식구들로부터도 원망을 들어왔던가?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의 자녀들은 수단 방법을 가릴 것 없이 출세하고 돈만 사람들을 바라보며 무의식중에라도 그 사람들을 성공한 사람으로 착각하게 되는 분위기 속에서 성장해왔던가? 그런데 지금은 사태가 정반대로 바뀌어, 고위 공직에 있으면서도 검소하게 사는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마십시오. 먹고 살 만큼만 주십시오. 배부른 김에 ‘야훼가 다 뭐냐’고 하며 배운망덕하지 않게, 너무 가난한 탓에 도둑질하여 하느님의 이름에 욕을 돌리지 않게 해주십시오.”(잠언 30, 8-9). 구약성서의 이 구절이 새삼 돋보이는 요즈음입니다. 그리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끌어모으는 사람들에 대한 구약성서에 또다른 대목 역시 전에 없이 크게 올려옵니다. “아 너희가 비참하게 되리라. 집을 연달아 차지하고 땅을 차례로 사들이는 자들이! 빈터 하나 남기지 않고 온 세상을 혼자 살듯이 차지하는 자들이!”(이사 5, 8).

3. 우리는 개인으로서나 사회 전체로서나간에 사마

리아 여인의 이야기에서 귀중한 교훈을 얻어야 하겠습니까. 그 여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와와의 깊은 만남을 계기로, 영혼의 가장 큰 갈망을 그대로 둔 채 물동이란 채우려들던 삶이 끝났던 것처럼, 우리 안에서 그런 변화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까. 재물은 그 자체로 좋은 것임에는 틀림없지만, 그것은 동시에 가장 큰 유혹의 기회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메시아로서의 활동을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께서 말하자면 자격시험처럼 거치지 않으면 안되었던 유혹 가운데서도 맨 처음으로 등장한 것이 재물이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마태 6, 24)는 말씀처럼, 재물에 대한 애착은 하느님께로 향해야 할 우리의 관심을 가장 심각하게 흐려 놓는 걸림돌이 됩니다. 그리고 이에겐 예외가 없어서 생활인들 뿐 아니라 종교인들에게 있어서도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고위직 공무원들의 재산 공개를 바라보며, 우리 각자도 한번 점검해볼 일입니다. 나는 어떤가? 혹시 몇몇하지 못한 방법으로 모아둔 재산은 없는가? 한푼이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하기로 하면 좀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돈이 나에게 들어오는 일은 없는가?

4. 그러나 이런 식의 자기 성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양심에 부담을 느끼면서도 잘못된 삶을 청산하지는 못하고 있다가, 세상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사람의 모든 욕심과 갈망을 한꺼번에 충족시켜줄 ‘영원한 생명의 물’을 얻고서야 비로소 두레박과 물동이를 버릴 수 있었습니다. 더 큰 보화를 발견하고서야 자질구레한 것들에 대한 애착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우리 안의 삶을 바른 길로 향하게 하고 우리의 자유를 묶어두는 온갖 밧줄로부터 헤어 나오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가장 깊은 갈망을 채워줄 하느님의 선물을 받아야만 합니다.

“주여, 저에게 그 물을 주십시오.”

축! 확장 이전
결혼예물전문(금·은·보석·시계)

고려보석

김형태(울리아노)
박태연(마르타)
전통 성당 사거리
☎ 82-9005

익스프레스 전주

포장 이사·일반 이사
임영섭(디모테오)
☎ 77-2424
72-4242

헌수 전문점
주단·침구·모시·삼베
계기한복·각종 이불 맞춤

부인주단

김한중(요한)
황인재(모니카)
완산구 전동 남문 옆
☎ 84-7294

태화 신발 백화점

신사화·숙녀화 } 총판매장
아동화·특수화 }

김문식(베드로)
심점순(데레사)
풍남문←→송약국 사거리
☎ 82-3118

특 집

부활절의 의미와 그 상징들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승리의 날이며 모든 축일 중에 가장 크고 중심이 되는 축일로서 인류 구원사업의 절정이다.

또 한해의 부활을 맞이하고 보내면서 다가오는 부활의 의미와 그에 따른 전례와 풍습에 관계된 상징들을 소개한다.

***부활의 의미**

예수 부활의 의미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죽음에 대한 극복'으로 인간의 운명적 죽음 앞에 느끼는 공포와 불안에 예수의 죽음은 새로운 삶의 길을 제시한다.

둘째, '죄악과 악에 대한 승리'로 인간의 모든 고통과 죽음이 죄에서 비롯되었는데 예수의 부활로 죄악과 악의 세력이 꺾이며 은총의 길이 제시된다.

셋째, '우리 부활의 보증'으로 우리 인간이 죽은 후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할 수 있다는 새로운 신앙과 그 신앙으로 새삶의 희망을 주는 것이 예수 부활이다.

***부활의 축일 결정**

부활 대축일은 유대인들의 빠스카 축제에서 유래하므로 유대인들의 월력으로 니산(Nisan)달 14일에 지냈으나 지금은 춘분이 지난 후 만월 다음에 오는 첫주일에 지내며 사순절, 성신강림 주일, 예수 승천 축일도 모두 부활 주일에 따라 결정된다. 이처럼 부활 주일은 모든 전례의 중심이며 주일 중에 주일로 다음 주일까지 축제의 분위기를 지낸다. 그리하여 '부활 팔부'라고 하며 옛날에는 부활 주일에 세례를 받은 자들이 그 흰옷을 한주일 동안 입고 있었다.

***부활의 상징**

이 부활 대축일에 신자들은 부활절의 의미를 상징하는 여러 가지 것을 만들고 주고받았다.

-부활 달걀

생명의 상징 : 달걀에 예쁜 그림, 글씨, 기호를 새겨 선물하는 관습으로, 봄 혹은 부활의 새생명을 상징한다.

다산의 상징 : 예수의 부활이 인류에게 새생명과 생명의 기원이 되어 널리 퍼져나가기에 소망하며 중세에는 사순절 동안 먹는 것이 금지되었던 달걀을 부활 맞은 신자들이 주고받았다.

지금은 주께서 영광스러이 묻히셨던 들무덤을 상징한다.

-부활초

다섯 개의 밀초에 향을 섞어 만든 못을 박은 부활초는 부활 성야에 축성하며 성신강림까지 제대 옆에 두고 전례시 불을 켜며 그후에는 성세대로 옮겨져 영세자들의 빛이 된다.

-빠스카 양

과자나 빵으로 어린양의 모양을 만들어 승리의 기를 꽃고 그 주위를 꽃, 초, 부활 달걀로 꾸며 축제기간에 나누어 먹었다.

-그의 상징들

그외에도 부활절의 의미를 상기시켜 주는 상징으로써 '영광의 십자가', '백합꽃', '병아리와 토끼', '나비', '빛' (촛불, 태양, 흰색) 등을 들 수 있다.

***맺음말**

'알렐루야'로 기쁨의 탄성을 울리며 '부활 삼중기도'로 믿음을 고백하는 부활은 그 자체가 신앙의 핵심이며 그리스도의 구원사업의 본질이었기에 그 성대함과 귀함을 드러내기 위해 삶의 자리에서 갖가지 상징과 행사를 가져왔다. 겉으로 요란한 포장이 된 달걀 한꾸러미를 사는 것으로 부활의 의미를 채워 넘기려 하기보다는 우리의 풍토와 정서 속에서 생생한 부활의 의미와 상징을 함께 나누려는 시도가 필요할 것이다.

요심이 (1024) 김병오



본당 설립 100주년 기념 성전 신축을 위한 바자회

- 일시 : 5월1일~4일(4일간)
- 곳 : 전주 전동 성당
- 품목 : 음식부, 토산품

주최 : 천주교 전주교구 고산 성당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남·여 직원 모집

- 인원 : 남·여 각 10명
- 자격 : 학력 및 기본 : 고졸 이상, 부기·주산2급 이상 자격소지자 또는 경리적·신협근무자·천주교 신자 우대, 남자는 병역필(면제), 35세 미만, 자격증사본 각1통
- 구비서류 : 이력서, 호적등본,
- 제출마감 : 93.4.11 서신 성당 신협
- 문의 : 253-1575, 74-9260

진선미 꽃집

각종 생화
신부 부케 전문

미지트 원목가구

중앙동 대리점
이명자(마리아)
범덕배(디또)
전주백화점 옆

☎ 진선미 84-2628
미지트 84-8725

핸드백·가죽 전문점
산호·상아원석 및 고급 악세서리

아씨방(선물의 집)

차가현(엘리사벳)

전주우체국 앞 중앙로
☎ 86-2495

삼성콘테이너(하우스)

사무실용, 기숙사용 주문 제작

대표 신득호
박명자(루시아)

지점 : 덕진구 여의동 1217-10
본사 : (02) 523-0877~9
지점 : (0652) 212-4336~7

서범석 한의원

원장 서범석(콜베)

팔달로변 덕진 성당 옆

☎ 72-2665
75-3533

교구 소식

❖ 교구 법원

· 때 : 4월12일(월) 오후4시
· 곳 : 교구청

❖ 재무 평의회

· 때 : 4월15일(목) 오전10시
· 곳 : 교구청

❖ 천호 피정 안내

· 때 : 4월20일(화)
· 주제 : 현대인의 신심생활
· 강사 : 정승현 신부

· 때 : 4월22일(목)
· 주제 : 그리스도인의 바른길
· 강사 : 김진석 신부
· 문의 : 천호 피정의 집
73-6600

❖ 가톨릭 방송인회 모임

· 때 : 4월13일(화) 오후7시
· 곳 : 가톨릭센터 1층 회의실

❖ 가톨릭 사진가회 촬영모임

· 때 : 4월18일(일) 오전7시
· 곳 : 가톨릭센터

❖ M.E. 주말

· 때 : 4월16일-18일
· 곳 : 천호 피정의 집

❖ 로사리오회 임원회의

· 때 : 4월17일(토) 오후2시
· 곳 : 가톨릭센터

❖ 전화번호 안내

· 둔율동 성당 : 사무실 43-2461,
본당신부 43-2462, 보좌신부
43-2463, 수녀원 43-2464,
유치원 43-2465

❖ 교도소 후원회 월례미사

· 때 : 4월12일(월) 오전10시30분
· 곳 : 가톨릭센터 3층

❖ 엄마들을 위한 영화 상영

· 때 : 4월19일(월) 오후3시
· 곳 : 교구청 별관 1층 소강당
· 제목 : 나의 왼발
· 내용 : 나의 왼발은 태어날 때부터
전신 불구로 사지 중에서 유일하게
신경이 살아 있는 왼발로 그림을 그
리고 책을 쓴 인간 승리의 실화를
그린 영화.
· 회비 : 1,000원

❖ 성소모임

❖ 사랑의 씨튼수녀회

· 때 : 4월18일 오후1시30분
· 곳 : 금암 성당 교육관
(0652)212-3233

❖ 전교가르멜수녀회

· 때 : 4월18일 오후2시
· 곳 : 서신동 성당 수녀원
(0652)74-9262

❖ 동정성모회

· 때 : 수시로 성소 상담
· 문의 : (0652)222-5269

❖ 살레시오 여름 신앙 캠프

· 때 : 7월23일-8월15일(2박3일씩)
· 대상 : 각 본당 중·고등학교생
· 신청 : 4월30일까지
(062)55-0332

■ 부활절에 권해드리는 책 ■

· 영원한 아침 속에서

캐럴 하우스센터/성찬성/2,000원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다. 늘 함께 있고
싶은 사람이 있다. 그는 바로 예수!
부활하신 당신은 내 사랑 전부입니다.



자연과 인간의 평화를 위하여

자연의 파수꾼으로

생동감이 넘치는 계절입니다. 귀여운 자녀들의 손을 잡고 산과 들로 나가봅시다. 탐스럽게 부풀어오른 꽃망울, 시냇가에 물소리, 발가락을 간지럽히는 모래알, 싱그러운 바람이 도시에서 각종 매연과 오염에 찌든 답답한 가슴을 후련하게 씻어줄 것입니다. 이렇게 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 어릴 때부터 자연과 친숙해질 수 있도록 자연물을

통한 놀이시간을 만들어줍니다. T.V를 보거나 오락게임을 하는 것보다는 옷을 좀 더럽히더라도 가까운 공원이나 놀이터에서 놀게 하고 시간 날 때마다 자연에서 뛰어 놀게 하면 자연과 더욱 친숙하게 되고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겨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자연 환경에 대한 미래의 파수꾼으로 자라나게 합시다.

산 농 서 실

고 영 선(마 태 오)
송 춘 섭(로사리아)

· 전교사거리←→병무청사거리
· 기린B/D(기아차 전시장) 3층
☎ 88-5580

양재 · 한복 · 흠패션

노라노학원

수시모집, 원장 직접 개인지도
원장 김 형 문(대건안드레아)

동부시장 앞 민정당사 옆
☎ 86-2715

현대 한의원

한방 물리요법 · 임상병리검사
원장 신 용 훈(안드레아)
전주백화점←→다가교(파란들 2층)
☎ (0652)85-6760~1

커피 · 양재 현대 흠패션 학원

· 초보자를 위한 무료 강습 실시
· 쿼미반 · 수업반 · 예비신부 우대
한 순 옥(요안나)
원대병원 앞
☎ 54-6890

활 티 생 수

청주교구 미원 성당 샘플
김 일 수(요 셉)
소 화 숙(수산나)
☎ 전주(0652)222-7415
이리(0653) 52-5595

호남장 의 사

수의, 관, 장의차, 공원묘지, 삼배,
이장공사, 장의용품 일체
조 인 국(엘리아)
최 춘 옥
사무실 : (0652) 75-3351
자 택 : (0652) 77-1392

☐ 남전주지구 본당소식 ☐

*** 노송동** 본당신부 82-9663 사제관 82-9663 주임신부 박 진 랑
수녀원 82-9662 사무실 82-9661 사목회장 김 동 주

- ◎ **축! 부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함께 하시길...
- ◎ **부활절 준비에 수고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1. **대건회 일원명단:** 회장-김태영(실비노) 부회장-최규철(라이 문도) 총무-김지원(라파엘) 재무-전태웅(마오로)
- 2. **사목회 제단체장 연석회의:** 18일 장엄미사 후 소성당.
- 3. **초중고 교리시간 안내:** ①초등부-토, 후 3시 ②중·고등부-일, 후 2시30분(단체활동) 후 3시30분(교리) 4. **알림:** ①부녀회(13일 어머니미사 후) ②재속 형제회(17일 후2시) 6. **사람의 성금:** 40,000원. **누계:** 622,000원 7. **축! 혼인:** 신랑-김치영. 신부-공광미(유스티나) 18일 후12시. 8. **금주 침소:** 중노 21, 22반. **차주침소:** 중노 23, 24반.

*** 복자** 사제관 86-3453 사무실 86-3455 주임신부 김 병 환
수녀원 86-3454 사목회장이 상 인

- 1. **축! 예수 부활 대축일!**
부활의 영광이 모든 교우가정에 함께 하시길...
- 2. **회합:** ①요셉회-오늘 공식미사 후
②푸리아-오늘 오후2시
③청년회-오늘 저녁미사 후
④부녀회-15일 오전10시
⑤성우회-18일 공식미사 후
- 금주 전례:** 해설-정승훈. 독서-이갑규씨 부부.
봉헌-임영모씨 가족.
- 차주 전례:** 해설-조육래. 독서-육종만씨 부부.
봉헌-이창기씨 가족.

*** 상관** 사제관 85-6654 사무실 85-6652 주임신부 한 봉 십
수녀원 85-6653 사목회장 한 동 옥

- ◎ **경축! 예수 부활:** 주 참으로 부활 하셨습니다. 알렐루야!
- 1. **오늘은 예수 부활 대축일:** 대전 엑스포 바티칸관 2차헌금.
- 2. **부활절 특별헌금:** 정성껏 봉헌합니다.
- 3. **예수 부활 대축일 경축행사:** 공식미사 후, 주일학교 은총시장-어린이미사 후.
- 4. **예비자 교리:** 매주일 공식미사 전 오전9:30분부터.
- 5. **모임:** ①장년회-17일(토)저녁 ②성가정회, 청년회-다음주 일.
- 6. **감사:** ①수녀원 비품-박마리아(25만원), 이재후 신부님(30만원) 강인수(10만원) ②꽃봉헌-이발라라, 김수산나, 장년회, 최상윤, 강옥례, 천사들의 모후Pr, 구세주의 모친Pr.
- 7. **주일미사를 껴하지 말고 미사시작 10분 전에 성당에 오십시오.**

*** 서학동** 사제관 84-8307 사무실 86-4929 주임신부 이 증 원
수녀원 84-2276 사목회장 김 명 웅

- ◎ **주 예수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2차헌금 있음)
- 1. **회의:** ①프란츠시교3회-오늘 오후 2시.
②성심회-4월13일(화) 오후 2시.
- 2. **모임:** ①울뜨레아-4월14일(수) 오후 7시30분.
- 3. **알림:** 영세식-4월17일(토) 오후 7시.
②영세자, 대부 대모는 4월17일 오후 6시까지 집길 (시간 엄수)
- 4. **감사:** 부활준비를 위해 수고해주신 성가대 여러분과 협조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용머리** 사제관 88-3872 사무실 87-0441 주임신부 현 유 복
수녀원 81-0441 사목회장 오 직 환

- ◎ **예수 부활 대축일.**
- 1. **오늘 공식미사:** 푸리아.
- 2. **건진 교리:** 오늘까지 신청바람.
- 3. **중·고 학생 교리만 모집:** 적극적인 인도 바람.
※ 성가대원을 찾습니다. 성가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 4. **침소 봉사:** 1구역 4반, 5반.

*** 전동** 사제관 본당 81-0098 보좌 82-7245 주임신부 김 봉 회
사무실 84-3222 수녀원 82-9234 보좌신부 정 성 만
유치원 84-8347 FAX 82-6232 사목회장이 영 태

- ◎ **축! 예수 부활 대축일**
- 1. **금주:** ①대전 세계 박람회 바티칸관 개설을 위한 2차 헌금 ②자모회(전10시) ③일치의 모후Cu(후2시) ④사목회(후8시) ⑤본당미사-전9시, 전10시30분, 후3시, 후7시.
- 2. **본당의 날 행사 안내**
①건진교리(성령세미나): 12일~17일 오후 7시-건진대상자, 대부모 모두 참석바람.
②전체 애행 연습: 18일 오후 5시, 제단체장, 봉사, 행사요원 참석바람.
③전야제: 23일 오후 5시(개막미사)
④본당의 날: 25일 전 10시30분(건진성사)
* 윤지충, 권상연 순교성당 건립부원 3,000만원 박순기 요한 감사합니다.

*** 평화동** 사제관 85-6979 사무실 83-8245 주임신부 이 재 후
FAX 82-6686 수녀원 87-0229 사목회장 감 상 근

- ◎ **축! 예수 부활 이날이 주께서 마련하신 날** 출몰을 추자.
- 1. **사순절 성미와 돼지저금통, 활동실천표 봉헌의 날:** 14일.
- 2. **교도수 후원회 월례미사:** 12일 오전 10시30분 샌타 3층.
- 3. **침소년 성소주일 신학교 방문:** 선학순 80명. 회비: 3,000원
- 4. **성당가족 엠마우스:** 12일~13일 부활준비의 수고에 감사.
- 5. **가정방문:** 6구역3반(우정목련) 15일 전9시, 후3시.
- 6. **레지오 비품함:** Pr별로 계반도구 책임관리 바랍니다.
- 7. **M.E(부부주말) 45차 강습회:** 16~18일 신규인 최화숙 부부.
- 8. **구역 반미사 감사예물:** 2,776,000원. 신축헌금으로 봉헌.
- 9. **회의:** 자모회-14일 어머니미사 후.
- 10. **부활절 기념 배구대회:** 오늘 완산중 교정 모두 함께합시다.

*** 화산동** 사제관 221-9843 주임신부 서 석 구
사무실 221-9842 사목회장 한 병 갑

- "주님! 당신 얼굴 보내시고, 우리의 모습을 새롭게 하소서."
- 1. **섬모회, 자모회:** 오늘 미사 후.
- 2. **반모임:** 13일(화)오전-화산2(B) 오후-평화. 저녁-삼정2 14일(수)오전-금화. 오후-화산2(A), 비사별 15일(목)오전-오성은하1, 오후-오성은하2
- 3. **푸리아:** 다음주일 미사 후.
- 4. **성령 묵상회:** 26일(월)~5월1일(토) 오후 7시30분~10시.
- 5. **금주 전례:** 최정순. 독서·봉헌: 오정숙, 기노석.
차주 전례: 정 길. 독서·봉헌: 김수육, 이 건

*** 효자동** 본당 223-3824 사무실 223-3821 주임신부 김 처 삼
보좌 223-3823 수녀원 223-3822 보좌신부 장 성 호
FAX 223-3821 사목회장이 동 십

- ◎ **오늘은 예수 부활 대축일입니다.**
- 1. **울뜨레아:** 오늘 저녁미사 후(교육관)
- 2. **섬모회:** 14일(수) 11시.
- 3. **자모회:** 다음주 21일(수) 11시.
- 4. **부활 주일 미사 안내(예수 부활을 통하여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빕니다. 아침-9시30분. 공식미사-11시. 초·중·고생미사-오후3시(미사후 어린이-은총시장 한마당) 저녁미사-6시.**
- 5. **미사안내:** 금주-상아탑, 창조주의 모후.
차주-인류의 모후, 예언자의 모후.

*** 효자우전** 사제관 221-3712 사무실 221-3711 주임신부 김 순 태
수녀원 223-0715 사목회장 엄 의 도

- ◎ **축! 예수 부활, 신자가정에 주님의 축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 1. **모임안내:** ①바자회 준비 모임-저녁미사 후 ②울뜨레아-저녁 미사 후 ③제대회-16일(금) 10시미사 후.
- 2. **바티칸관 개설을 위한 2차헌금이 있습니다.**
- 3. **축! 바둑대회와 배구대회 중식과 동동주, 파전 원가판매.**
금주 전례: 해설-김낙원. 독서①엄익도 ②편혜자
봉헌안내-고영표 부부, 이홍재 부부.
□ **지난주 교무금:** 1,738,000원.